

5·18 41주년 행사 경건하고 내실있게 치른다

기념행사 주제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

5·18정신으로 코로나·미안마 학살·아시아계 혐오 극복... 17일 전야제 열려 국가기념식 참여 인원 100명 이내 제한...추모 문화행사 축소된 형태로 진행 노면 소프 특별전·음악회·문학제 등...서울·대구·충북 등서도 다양한 행사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코로나19·미안마 학살·아시아계 혐오·폭력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경건하면서도 내실 있게 치러진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54개 참가단체로 구성된 제41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 공모를 통해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를 올해 기념행사 주제로 선정했다.

코로나19와 미안마 학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폭력 등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위기의 시대를 5·18 정신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세대와의 조화로 민주인권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기조와 방향을 담았다.

광주시와 행사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여 인원을 100명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전야제는 17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식전 행사인 민주대행진 등은 취소됐지만 5·18 정신 계승 풍물굿, 추모 문화행사 등은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 또 비대면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41주년 국가 기념식도 18일 오전 100명 이내로 참가자를 제한해 진행된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할 가운데 현화·분향, 경과보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이뤄진다. 이날 전국 15개 시도에서도 관련 행사가 펼쳐지는 등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한다.

서울에서는 이날 서울 기념식을 비롯한 제2회 3분 영화제, 특별전시회, 차랑 시위 기념 경적 이벤트, 국제학술대회 등이 열린다. 전남에서는 '남도 울림'이라는 주제로 17일 기념식, 남도 오월 문화

제, 청소년 미술 공모대회 등이 열린다. 충북에서는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앞에서 기억식 및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사진전을 통해 광주의 5월을 알리고 5월 사적지 기행 프로그램

램으로 광주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와 행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그날의 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도 곳곳에 마련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외신기자 노면 소프가 1980년 5월 당시 촬영했던 현장 사진 등 미공개 자료 200여 점을 공개하는 '노면 소프 특별전'을 이어간다.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전시회도 10일 대구 경북대에서 개막한다. 14일에는 1991년 5월 열사 30주년 기념 '다시 꺼내놓은

1991 사진 전시회'가 광주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밖에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광주문화재단과 제주 4·3평화재단이 공동으로 5·18과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와 희망의 음악'으로 연주하는 특별 음악회를 연다. 문학제, 미술제, 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주체별로 진행된다.

'2021년 광주인권상' 시상식(18일 5·18기념문화센터), 지역 초·중·고 교실과 5·18 사적지를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랜선 오월길(17일),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식(25일) 등도 준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발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9일 오후 국립5·18민주묘지에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참배객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10~21일 5·18 기념주간 설정 계기 수업·주먹밥 식단 등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10일부터 21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학교에서는 교과와 행사 활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계기 수업을 한다.

도 교육청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월 이야기' 등의 수업자료와 리플릿을 전체 학교에 배부했다.

미안마 민주화운동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미안마와 오월 광주 민주주의와 만나다'라는 주제의 수업 예시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각 교육기관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18일 구내식당에서 주먹밥 식단을 운영해 80년 5월을 기억하며 나눔과 연대를 체험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1일까지 도 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는 5·18 청소년 미술제 우수작품이 전시된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지역 6개 고등학교에서는 '박관현 평전', '스물두살 박기순' 등 5·18과 관련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는 오월 도서 읽기를 한다. 독후감은 9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세월호 특검 13일 현판식 이번주 본격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주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고 오는 13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아울러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넘겨받아 서증·주진철 특별검사보고서와 매일 회의하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임명된 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연합뉴스

'법꾸라지' 전두환...불성실 태도 비판 목소리 높다

오늘 항소심 재판 불출석...법조계 "예외 사유 해당 안된다" 지적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 다. 전씨가 재판을 며칠 앞두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다,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회수 혐의

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전씨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365조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해석이 있다"며 전씨의 불출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365조)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비슷한 판례 등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개정,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게 전씨측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이 '피고인은 인정 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의무가 생긴 것이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 ▲공소시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약시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 회의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